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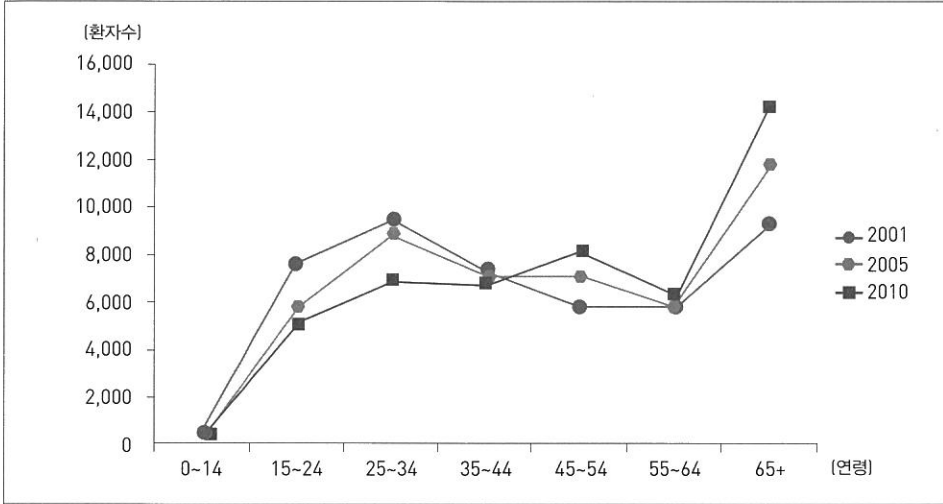
2001~2010 인구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결핵 부담의 증가

지난 10년간(2001~2010년) 한국에서 신고된 결핵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신고된 결핵환자와 연령 특이적인 인구 추이를 매년의 연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45~5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서의 신환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15~34세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특히 2010년 신고된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3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1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10년 동안 신고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은 주요 요인은 노년층인구 증가와 결핵으로 발전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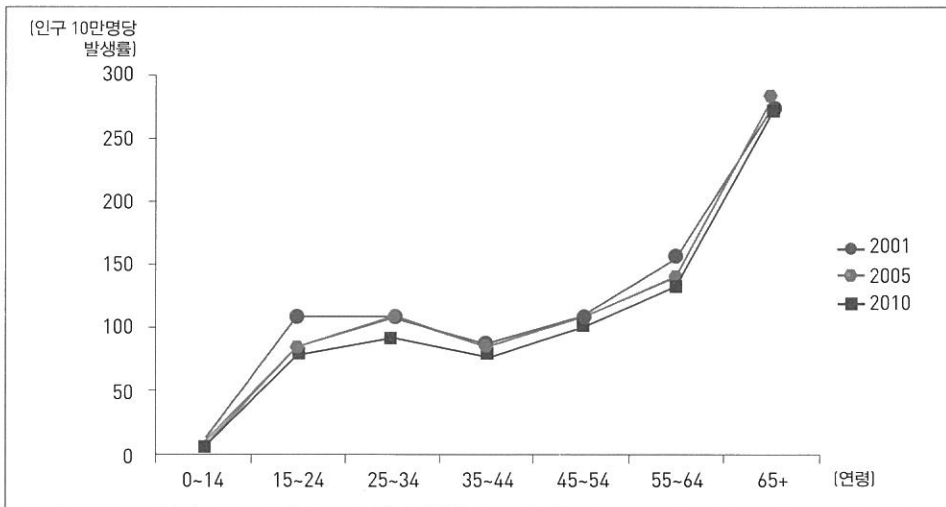
위험부담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에 기인하였다. 10년 후 미래에 한국의 노년층이 더욱 증가되므로 결핵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결핵을 성공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노년층의 결핵 발병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1~2010까지 신고된 결핵환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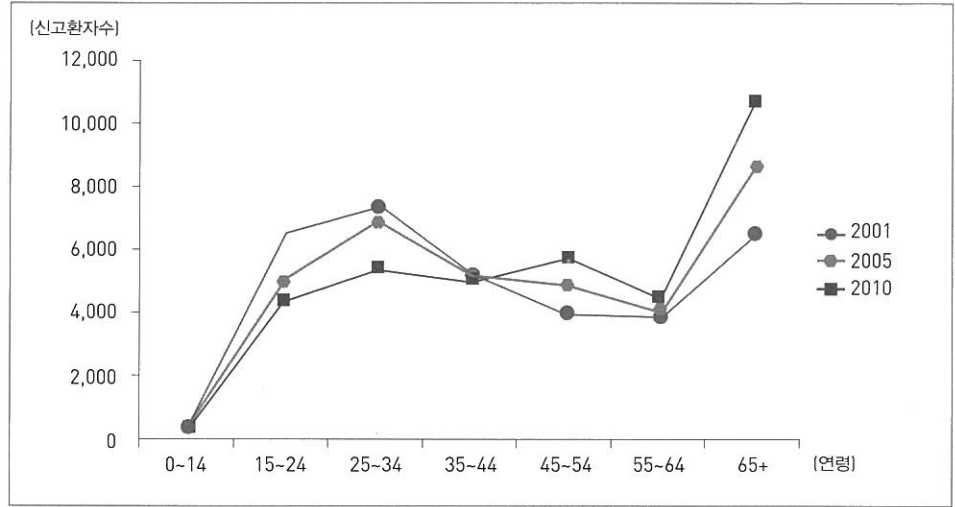
구별되는 특징은 2010년에 45~54세 연령층과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핵환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1~2010까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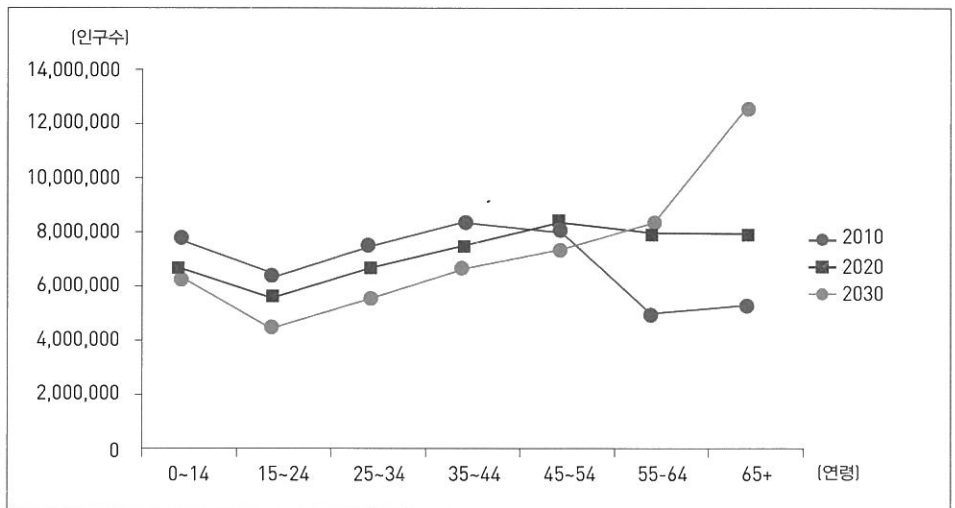
2001년과 비교해 2010년 결핵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2001~2010 연령별 결핵신고신환자]



신환자는 45세 이상에서 증가하였는데, 2001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특히 65세와 그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미래에 예상되는 연령별 인구(국내 통계)]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령층 그룹을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조은희 연구관/나경인/박윤성
대한결핵협회 신상숙 사무총장/결핵연구원 연구개발부 박영길 부장